

## 제 2 과: 요한계시록 4-5 장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시련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시작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시련들 가운데에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들과 말씀들을 탐구할 때,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하나, 도리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준 바 된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래의 “두루마리와 어린양”(요한계시록 5 장)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4 장 1-11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톰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 장이야말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4 장은 요한이 드디어 이 책의 제목으로 붙인 ‘계시’를 받는 곳이다. 이 대목부터 이후의 모든 것은 요한이 거기 하늘의 알현실(throne room)에서 있을 때 그가 받은 환상의 일부분이다”(42).

**톰 라이트의 “일곱(sevens)”에 대한 설명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유의 책이 ‘일곱’의 연속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채롭게 뒤섞이는 이미지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곱 편지를 보았다. 이제 6:1 과 8:1 사이에서 떼어 낼 일곱 봉인이 시작될 것이다. 일곱 번째 봉인에서 또 하나의 연속, 8:6 에서 11:15 까지 하나씩 불게 될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그 뒤에 이 책의 중심부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악의 원천과 그 우두머리 대리인이 드러나는 환상, 곧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과, 이 짐승을 모종의 방법으로 격파한 사람들의 환상도 발견한다(12-15 장). 그 뒤에 이것은 마지막 일곱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곧 이집트의 재앙처럼(15:1) 거대한 독재 권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마수에서 구출하는 수단이 될 최후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이 진노의 대접은 16 장에서 부어지지만, 그 효과는 17 장과 18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되고, 19 장에서 두 짐승에 대한 승리의 축하로 이어진다. 이로써 옛 용 혼자만 남고, 용의 운명의 마지막 반전이 20 장에 서술된다. 이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마지막 계시를 위한 무대를 정비한다. 곧 하늘과 땅이 완전히 또 영원히 결합된 새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우리가 4 장과 5 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진 궁극적 ‘하늘’의 환상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요한이 *지금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하늘’로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다. 하늘의 알현실 장면은 현재의 실재다. 요한이 거기 있는 동안 그가 받은 환상은 “이 일들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복합적 환상이다. ‘세상의 종말’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동안 일곱 교회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경고했던 바, 세상을 휩쓸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고난을 야기할 참담한 사건에 대한 환상이다.

요한은 알현실로 소환된다. 일부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처럼, 그가 하나님의 회의실에 서서 진행되는 대화를 듣고 그 뒤 그것을 지상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할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22 장의 이플라의 아들 미가야처럼, 요한은 군대를 주위에 두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논의와 계획에 접근하도록 허락 받는다. 그러나 이 장면은 또한 우리에게 에스겔이 선회하는 불 바퀴를 타고 앞뒤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보좌용 전차 환상을 받았던 에스겔 1 장도 상기시킨다. 무지개(3 절)는 에스겔 1 장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창세기 9 장의 노아 이야기로도 우리를 데려간다. 창세기 9 장에서 하늘의 큰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가시적인 자비의 약속이었다.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는 우리에게 상상해보라고 도전한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듯, 이런 도전은 이 두 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비와 경외심과 아름다움의 풍부하고 알찬 조합이다(43-44).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고 예외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속 인물들 중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계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들을 성경의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예를 들어, 열왕기상 22 장과 에스겔 1 장).

지난 과에서 다룬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며, 그가 이미 승리하였고, 이기고 있으며, 또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톰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장면에 대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측면에서 얘기했고, 요한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처럼 그 앞에 등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선임 참모에게 둘러싸여 보좌에 앉아 있는 알현실 개념은 즉각 요한의 독자에게 아주 다른 궁정을 연상시켰을 것이다. 곧 황제의 궁정이다. 우리는 이미 첫머리 세 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맞서는) 권력 투쟁의 암시가 있음을 들었다. 이제 강한 암시를 통해 우리는 세상 권력이 단지 하늘과 땅을 실제로 또 참으로 통치하는 한 절대 권력의 패러디, 값싼 모조품임을 깨닫도록 초대받는다.

요한의 위대한 환상이 펼쳐 보이듯이, 우리는 앞으로 이들 이간의 나라가 어떻게 사악하고 잔인한 권력을 획득했는지, 또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권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맞서 승리를 거두는지 볼 것이다. 이것은 일곱 편지가 교회들에게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승리다. 우리는 이제 그 승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본다. 그 일은 실재가 드러나는 동시에 시작된다. 고대 터키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교회 생활의 혼란 배후에, 가짜 회당과 위협하는 통치자의 도전 배후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호한 투쟁과 어려움 배후에, 세상의 창조주요 주님이 주권자로

계신 하늘의 알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환상을 묵상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 주는 실재를 어렵듯이 보기 시작한다(45-46).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여러분은 언젠가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 곁에 있어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소원하십니까/소원하지 않으십니까?

## 두루마리와 어린양

요한계시록 5 장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톰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둘 말린 건물 설계도를 든 건축가처럼, 또 둘둘 말린 군사작전 계획을 든 장군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 이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었다. 이미 상당한 토대가 마련된 세계 파괴 프로젝트를 취소해 전복시키고, 그 대신 창조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 궤도에 올릴 세계 구원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양성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담겼다는 우리의 추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 세계의 문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망치고 부수는 오랜 시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대답은 온 인류 안에 깊게 뿌리박힌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모든 피조물 안에도 깊게 뿌리박힌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를 지녔음을 보여준다(3 절).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51-52).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하와도 실패했으며,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극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이것을 본 요한도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한에게 공감하며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하지만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내는 계획(7:17; 21:4)이 이미 시작되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울지 마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소.” 우리는 쳐다보기도 전에 그가 누구인지 안다. 그분은 참인간이시다. 그분은 참이스라엘 백성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툼 라이트는 “사자형 그리스도인들(lion Christians)”과 “어린양형 그리스도인들(lamb Christians)”을 구분 짓습니다.

1.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정치, 혹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까?
2.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사자형의 방식과 어린양형의 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참고: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은 더이상 사자가 아닌 어린양으로 묘사됩니다.

### 툼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이 그 뒤에 더 넓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구속 목적 (“나라와 제사장”)을 진척시킬 수 있게 하신 어린양을 찬양한다. 수많은 천사들이 동참하는 두 번째 노래는 어린양이 성취하신 것에서 그분의 합당한 자격, 즉 창조 세계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광에 시선을 돌린다. 열방의 부와 힘이 그분의 것이다. 인간의 삶을 고귀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것,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를 즐기고 경축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그분 발 앞에 놓여야 한다. 애석하게도 순전히 개인적 위로와 소망(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신다)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위엄의 전 범위, 그분의 영광의 전 영역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한 자리에 모시고, 부와 권능과 영광을 비롯한 나머지 전부를 지상의 세력과 통치자들에게 계속 부여하는 데 만족한다. 아마 일부 교회에서 계시록이 주변으로 밀려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시록이 이런 태도에 강하게 도전하기 때문일 것이다(57-58).

###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의 부름, 예배 음악, 기도, 말씀과 설교, 헌금, 축도 등)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2. 우리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 마침기도 (가능하면 함께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좇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능력과 부와 지혜, 세상에서의 힘, 존귀와 영광, 찬송을 좇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 주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